



농촌진흥청, '제8회 국제 토종돼지 학술대회' 공동 개최

- 10월 22~24일 제주서 '토종돼지 보존과 산업적 활용' 연구 성과 공유
- 8개국 전문가 80여 명 참석, 각국 연구 성과·사례 발표
- 품종 개량·고품질 돼지고기 생산 등 산업적 활용 방안 논의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 국립축산과학원이 한국동물유전육종학회, 제주대학교와 공동 개최하는 '제8회 국제토종돼지 학술대회'가 10월 22일 제주대학교 친환경농업연구소에서 개막, 24일까지 열린다.

이번 학술대회는 각국 토종돼지의 고유한 유전적 특성을 보존하고, 품종 개량과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 등 산업적 활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한국, 일본, 대만 등 8개국 관련 연구자 및 학회 회원 등 전문가 80여 명은 국제 토종돼지 관련 연구 성과와 각국 사례를 공유한다.

주요 강연에서는 스페인 이베리코 돼지의 생산 체계, 제주 재래 흑돼지를 교배해 개발한 품종의 유전적 특성과 개량 연구, 일본 아구 돼지의 유전자원 보존 기술 등을 소개한다.

이와 함께 흑돼지의 성장·육질 특성과 유럽 토종돼지의 보존·활용 사례도 폭넓게 다룰 계획이다.

이어 종합 토론에서는 토종돼지 유전자원의 보존과 활용, 유전체 기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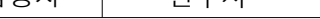
개량 기술의 발전 방향, 고품질 돈육 생산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특히 각국 전문가들은 지속 가능한 토종돼지 산업 발전을 위한 국제 공동연구와 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상호 협력 의지를 다질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생명환경부 유동조 부장은 “토종돼지는 고유한 유전적 특성을 가진 소중한 가축 유전자원이자 우리 축산업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자산”이라며 “이번 학술대회가 국내 토종돼지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국제 연구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고유 가축 유전자원의 체계적인 보존과 첨단 유전체 기술을 활용한 산업적 활용 연구에 매진해 국내 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제8회 국제토종돼지 학술대회 공동 개최 계획(안)

담당 부서	국립축산과학원	책임자	센터장	김남영 (064-754-5701)
	난지축산연구센터	담당자	연구사	강용준 (064-754-5714)
	농촌진흥청에서 연구·개발한 농사의 모든 것 농사로 			

□ 행사개요

- 주제: 글로벌 토종돼지 연구 및 산업의 현재와 발전 방향
- 주최: 한국동물유전육종학회, 국립축산과학원, 제주대학교
- 일시 및 장소: 2026년 10월 22일(목)~24일(토), 제주대학교 친환경농업연구소
- 참석자: 한국, 일본, 대만 등 8개국 관련 연구자 및 학회 회원 등 80여 명

▶ 이전개최지: ('17년) 스페인 → ('19년) 일본 → ('22년) 대만 → ('24년) 헝가리

□ 컨퍼런스 주요 프로그램 구성

- (기조강연) 글로벌 토종돼지 연구 및 산업의 현재와 발전 방향

< 주요 주제 및 초청연사 >

■ 이베리코돼지	Mercedes Izquierdo(CICYTEX, 스페인)
■ 한국재래돼지	박희복 교수(국립공주대학교, 한국)
■ 일본토종돼지	Kazuhiro KIKUCHI(Kitasato university, 일본)
■ 대만토종돼지	Fang-Chueh Liu(Livestock Research Institute, 대만)
■ EU 지리적 표시	Danijel Karolyi(Zagreb university, 크로아티아)

- (학술교류) 국제 연구자 간 연구성과 교류 및 학술발표

* 기조강연 5건, 초록 39건, 구두발표 4개분과 13개 발표

- (종합토론) 국제 연구협력 및 발전방향 논의

* (참석자) 국내·외 대학 교수, 연구기관 연구자, 관련 산업체 및 유관기관 관계자

⇒ 토종돼지 관련 연구방향 설정 및 국제 협력 강화 방안 모색 등

□ 기대효과

- 토종돼지의 생산과 산업적 활용 기반 확대를 위한 국내외 협력 체계 구축

* 국내 토종돼지의 가치 제고 및 관련 산업 경쟁력 강화